



가라사키노마쓰(唐崎松) 겐로쿠엔 안에서 가장 가지가 아름다운 소나무이다. 제13대 영주나리아스가 비파호반의 가라사키에서 종자를 얻어다 심어 키운 흑송이다. 11월1일부터 겨울철에 내리는 눈으로부터 나무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끈으로 나무가지를 동어매는 유키즈리 작업이 시작되며 이 유키즈리는 호쿠리쿠 지방에 겨울이 찾아 옵을 알려주는 풍물시가 되고 있다.



겐로쿠엔 기쿠자쿠라(벚꽃)
(兼六園菊桜)
300장을 훨씬 넘는 꽃잎수가 가장 큰 특징



곡수(曲水)
정원 안을 굽이 굽이 흐르고 있는 풍부한 물은 1631년 에도초기 대화재가 발생한 이듬해, 제3대 영주 도시쓰네의 명령하에 상인 이타야 효시로가 성의 「방화용수」로 만든 다쓰미 용수를 이용하고 있다. 물가에는 벚꽃이 심어져 있어 4월의 개화 시에는 연녹색의 제비꽃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이시카와몬(石川門)

가나자와 성의 후문, 이시카와몬 은 30체가 한 지붕아래 들어서 있는 산쫘켄 나가야와 함께 옛 가나자와성에얼마 남지 않은 유적의 하나이다. 1788에 세워졌으며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 돼 있다. 하얗게 빛나는 지붕은 날이 많이 함유된 기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유가오테이(夕顔亭)
1774년에 지어진 다실로, 정원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다실 열방의 벽장식이 유가오(표주박의 고어) 모양을하고 있어 유가오테이(경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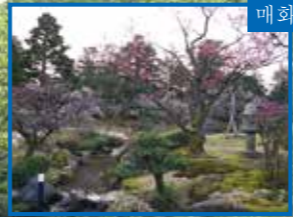
시구레테이(時雨亭)

제5대 영주 쓰나노리가 처음 정원을 조원했을 때부터 있던 건축물로 렌치오천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제6대 영주 요시노리가 재건했으나 변정후기에는 시구레테이(정자)라고도 불렸으며 현재의 분수 앞에 위치해 있었다. 메이지시대 초기에 허물었다가 2000년 3월에 이 자리에 다시 지었다.



하나미바시(花見橋)

하나미바시(다리)에서 꽃 구경을 하면 더한층 아름답다. 벚꽃, 철쭉꽃, 제비꽃이 피어날 때는 더욱 아름답다.



분수(噴水)

이 분수의 물은 왼쪽에 있는 가스미가이케 연못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이며 자연적인 수압을 이용했다. 평소 분수의 높이는 3.5m이며, 가스미가이케 연못의 수위에 따라 변한다. 1861년, 분수가 성의 외곽(니노마루) 거실앞에 솟아 올랐는데, 겐로쿠엔의 분수는 그를 위한 시범작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분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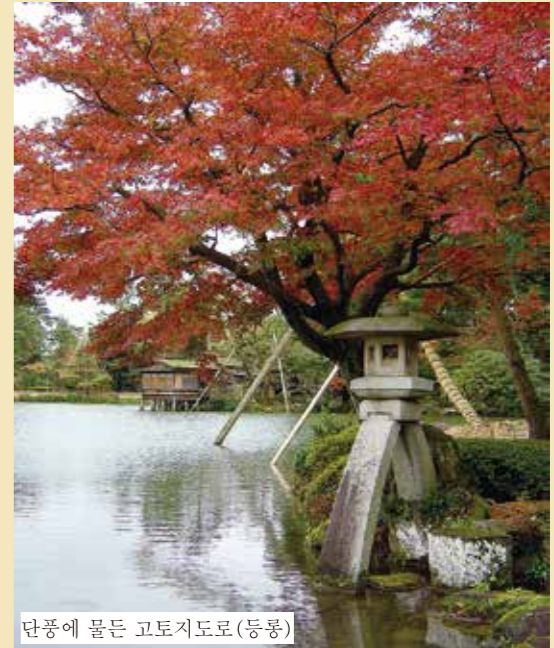
간코바시(雁行橋)

11개의 아카토무로이시(安山岩)를 사용해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본따 만든데서 간코바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개 한개의 돌이 거북의 등모양을 하고 있어 깃코바시(亀甲橋)라고도 한다.

문화재 지정 정원 특별명승



겐로쿠엔



단풍에 물든 고토지도로(등롱)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성
· 겐로쿠엔 관리사무소**

일본국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 마루노우치1-1
TEL (076) 234-3800
FAX (076) 234-5292

<http://www.pref.ishikawa.jp/siro-niwa/kenrokuen>

겐로쿠엔은 에도시대 (1603~1868) 의 대표적인 임천회유식(林泉回遊式) 대정원의 특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겐로쿠엔은 본래 가나자와성의 외곽으로 성에 속한 정원이었다. 성에 면해 있는 경사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가가번 제5대 영주 마에다 쓰나노리가 1676년, 이 지방에 있었던 건축작업장을 성안으로 옮긴 뒤 랜치오친(정자)을 지어 그 주위에 정원을 조성했다. 이것이 본 정원의 효시이며 그 당시에 랜치테이 등으로 불렸다. 1759년의 가나자와 대화재로, 랜치테이도 대부분이 소실됐다. 제11대 영주 하루나가는 복구에 힘썼으며1774년에 축조한 것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가오테이(정자)와 미도리타키(폭포)이다. 한편, 동남쪽의 평지인 지토세다이 일대는, 가신 7명의 무사저택인 부케야시키를 짓거나 번의 자재를 교육하는 번교가 세워지는 등 번청이 있었지만, 1822년 제12대 영주 나리나가가 호화로운 은거지인 다케자와 저택을 완공시켰다. 그 정원에는 다쓰미 용수를 이용해 굽이 굽이 흐르는 곡수를 만들어 각종 돌 다리를 놓았다. '겐로쿠엔'은 그 다케자와 저택이 완성된 그 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이 격비가 쓴 낙양명원기 속의 문장을 인용해 광대(宏大), 유수(幽邃), 인력(人力), 창고(蒼古), 수천(水泉), 조망(眺望)의6가지를 겸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명명됐다.

다케자와 저택이 완성된 후, 불과 2년만에 나리나가는 세상을 떠났다. 이 저택을 허물어 버린 제13대 영주 나리아스는 가스미가이케(연못)를 파서 넓히고 물이 흐르도록 새로운 곡수도 만들어 이전부터 있었던 랜치테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원을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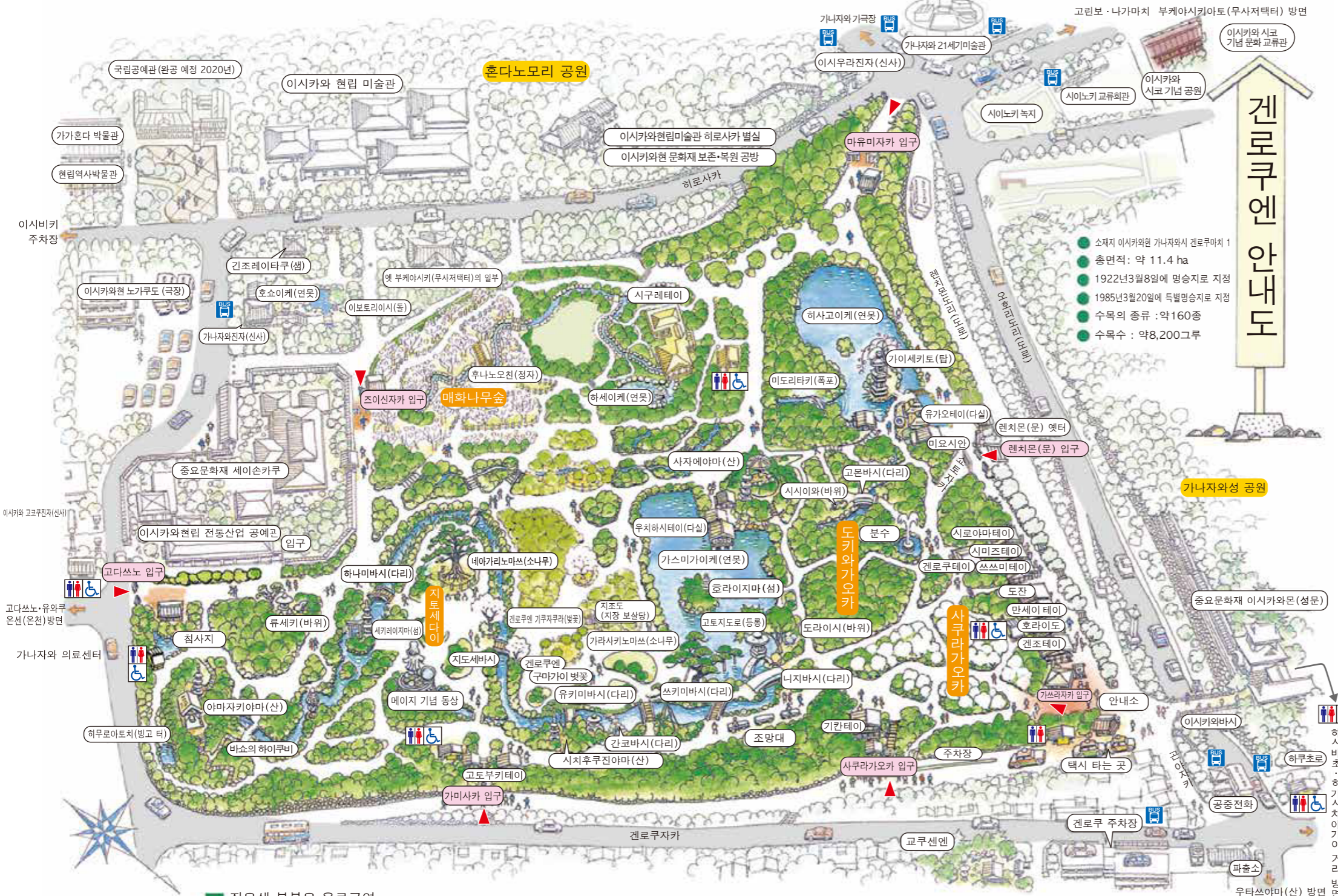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오늘날에 전해오는 웅대한 회유식 정원의 기본구조가 완성됐다.

번제도가 폐지된 후 1874년 5월 7일 겐로쿠엔은 일반공개됐다. 1922년 3월8일, '사적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법'의 규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겐로쿠엔은 1950년 현재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거듭 '명승'지정을 받았다.

나아가1985년 3월 20일 에 '특별 명승'으로 승격됐다.



개원시간: 7:00~18:00 (3월1일~10월15일)
 (연중무휴) 8:00~17:00 (10월16일~2월말)
 입장료: 성인 320엔(18세이상) 소인 100엔(6세이상 18세미만)
 단 체: 성인 250엔(18세이상) 소인 80엔(6세이상 18세미만)
 (30명이상)



- 소재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겐로쿠마치 1
- 총면적: 약 11.4 ha
- 1922년3월8일에 명승지로 지정
- 1985년3월20일에 특별명승지로 지정
- 수목의 종류 :약160종
- 수목수 :약8,200그루

■ 짙은색 부분은 유료구역